

2022년 10월 30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00편 4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342(통395)장 너 시험을 당해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욥기 10장 13~22절(구약p.770)

13.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14.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5.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16.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17.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18.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19.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20.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21.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22.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저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 ◎ 말씀선포 / 신앙이 흔들릴 때

평소에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큰 고난을 당하면 신앙에 회의를 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의 의도를 해석하며 자신의 지난날을 곰곰이 돌아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욥이 그러했습니다. 욥의 고백은,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신앙이 흔들릴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 1. 하나님의 의도를 해석하려 합니다.

- 본문 16~17절입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욥의 발언은 참으로 파격적입니다. 하나님을 “젊은 사자”와 “군대”에 비유하여, 하나님이 막강한 힘으로 자기를 공격하기만 하시니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고 한탄합니다. 사실 욥의 이 말에는 자신이 무죄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참으로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욥의 신앙관도 그를 정의하는 친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기본 전제로 깔고, 한쪽은 죄가 있으니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죄가 없는데도 고난당하니 억울하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관을 바탕으로, 욥이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결국 하나입니다.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신앙관을 바꿀 생각은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의도를 오히려 곡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의 현상에는 수많은 원인과 복잡한 맥락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사고할 수 없어 단순명료한 이유라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순종했던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대속의 제물,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왔음을 아셨기에 아무 죄가 없음에도 그 모든 일에 오직 묵묵히 순종하며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모릅니다. 뿐만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억울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어쩌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모든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바로 우리에게는 불가피한 일일 것입니다. 다만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기를, 이러한 영적 방황 끝에는 반드시 더 실질적이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고민이 없는 신앙은 때로 공허합니다. 욥도 이런 과정을 거쳐 큰 깨달음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욥이 이 모든 과정이 지난 후 깨닫게 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라는 것이고, 욥기 42장 5절에서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고난 가운데서라도 더욱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그 거룩한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신앙이 흔들릴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 2. 완전히 낙담하게 됩니다.

- 본문 18~21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욥은 매우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무덤으로 옮겨졌어도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나님이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인정하셨던 욥이 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무뎌지고 망각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낙심, 슬픔, 우울, 아픔, 고통은 그의 뼈마디 마디에 깊숙이 새겨져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가 고통의 한가운데서 바랄 수 있는 것은 죽음의 땅으로 내려가기 전에 잠시나마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쉽지 않음을 알고 그는 완전히 낙담한 듯 보입니다. 차라리 죽기를 바랄 정도로 큰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는 성도들은 욥의 마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럴 때는 가족이나 친구들조차 도움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구하나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깊은 상처뿐입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도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완전히 낙담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까 봐 겁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만을 가장 간절히 바랄 때가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어둠으로 뒤덮인 우리의 마음속에서 십자가가 가장 밝게 빛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의 힘이 완전히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완전히 낙담했을 때, 주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납득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며 우리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신앙은 복잡다단한 인생과 분리된, 고차원의 영역이 아닙니다. 방황과 좌절의 과정이 없다면 신앙은 언제까지나 추상적, 관념적 차원에 머무를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이고 단단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방황하고 낙담하는 과정도 때론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의 부족함을 알고 빈껍데기 같은 공허한 나 자신의 상태를 바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바로 예수로 충만하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의 삶 속에, 내 연약함 속에 오직 예수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속이 가득한 것은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로 충만할 때 마치 오뎅이처럼 넘어지고 쓰러진 인생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결국에는 굳센 믿음을 갖게 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338(통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 ◎ 폐 회 / 주기도문